

<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

4. 총체적 예술을 추구한 서양의 예술가들과 아시아 사상의 영향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1. 이브 클라인 등장 of 시대적 배경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50년대 초반까지 맹활약하던 전후 1세대 화가들의 앵포르멜(L'Art Informel) 계열 회화가 쇠퇴하기 시작. 이에 전후 2세대 미술가들은 회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재료를 미술에 끌어 들임으로써 미술과 삶의 통합을 꾀하는 다다의 반미학 정신을 부활시켜 자신들이 당면한 도시 현실을 미술에서 보여주고자 함. 이것이 누보 레알리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 이러한 배경 가운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작업으로 당대 미술의 선구자적 존재로 부상한 사람이 바로 이브 클라인

2.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62)의 작품 세계

- 동양철학의 영향으로 예술의 비물질화 추구
- 미술을 통해 자신의 환경 반영 (미술과 삶의 통합)
- 일상용품을 미술 재료로 사용
- 자신만의 푸른색 창조(International Klein Blue, IKB)
- 퍼포먼스와 회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퍼포먼스 회화 발표
- 건축적 차원과 공공장소 간의 상호작용을 예술의 핵심 요소로 고려
- 34년이라는 짧은 생애도 불구하고 1,000여 점의 작품을 남김

(1) 다양한 색상의 단색화(Monochrome Painting) 연작

어린 시절부터 구상화가였던 아버지와 추상화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현대미술의 여러 당면 이슈들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짐. 특히, 그는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결단을 요구 받던 부모님 세대 화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이슈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현대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한다고 느끼게 됨. 색채들은 모두 각각의 독특한 생명력을 지니며,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20대 초반인 1940년대 말부터 단색화를 발표하기 시작. 선이나 형태보다 색채가 3차원 이상의 차원을 표현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2) 청색 시대 (The Blue Epoch)

색채 고유의 느낌을 클라인이 "시적 에너지," "순수 에너지" 라고 지칭했던 인간의 정신과 연결시켜 보려 했던 자신의 단색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타 다른 추상화와 구별되지 않은 평이하고 장식적인 회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놀란 클라인의 자신만의 고유한 색상을 개발하여 자신의 회화 컨셉을 대중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끌게 됨.

1년이 넘는 기간을 미술재료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에 헌신한 끝에 개발된 것이 1956년 가을에 발표하

IKB(International Klein Blue). 클라인에게 청색은 생동감 넘치는 동시에 공허한 자연의 현상(끝을 알 수 없는 하늘과 심해)과 직결되는 색상.

(3) 동양적 '공'의 사상을 표현한 전시 ("With the Void, Full Powers")

IKB 회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8년경부터 이미 클라인은 실제 제작된 작품 자체보다 작품을 위한 컨셉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간구하기 시작. 그것이 바로 1958년 4월 파리의 Galerie Iris Clert에서 열린 <Le Vide (The Void)> 전시. 갤러리를 완전히 비우고, 갤러리 벽면 전체를 자신이 개발한 화이트 안료를 사용하여 칠함. 갤러리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면서 텅 빈 공간을 상징. '여기, 그리고 지금'의 개념과 비물질적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 이 젊은 미술가의 참신한 노력을 높이 산 덕에 이 전시에는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 가고, 큰 화제를 일으키게 됨.

(4)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회화 연작

1960년 11월, 이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 "허공 속으로 뛰어들다 The Leap into the Void"를 선보임. 이 작품의 부제는 "공간 속의 사람. 공간의 화가 허공 속으로 자신을 날리다"

(5) 삼색 모노크롬 회화와 불꽃 회화 연작

1960년부터 그의 유명한 청색 회화에 이어 핑크와 골드를 사용한 단색화를 발표하기 시작. 덧없음(하루 만에 지는 꽃의 아름다움)과 찰나(불꽃)를 상징하는 핑크색과 영생을 상징하는 골드. 이들 색채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를 완성. 골드는 또한 교환(인간의 경제 활동)을 상징하기도 함. 실제 금박을 사용한 단색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클라인은 <비물질적 회화적 감수성의 지대, Zones of Immaterial Pictorial Sensibility>라는 작품을 판매하고, 이 작품 가격에 해당하는 금박을 작품 대금으로 받음.

2. 퍼포먼스에서 비디오 아트로

(1) 퍼포먼스(Performance)

회화·조각 등 전통적인 매체로는 충족할 수 없는 표현욕구를 신체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예술행위. 춤, 해프닝(Happening), 무언극, 음악 공연 등 넓은 범위 포함. (해프닝: 1959년 미국의 행위예술가 앨런 카프로우(Allan Kaprow)가 관객 앞에서 미술가가 몸으로 펼치는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붙인 명칭. 주로 미술가의 행위 이벤트를 의미하며 퍼포먼스가 보다 넓은 의미) 고급미술에 반항하는 측면이 반미학적 다다와 흡사하며, 완성물로서의 미술품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념미술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음. 플럭서스가 그 대표적인 퍼포먼스 그룹.

(2) 비디오 아트(Video Art)

비디오를 예술 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미술. 순간으로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비디오를 탐구하면서 비디오 아트의 계기 마련. 백남준은 여기(퍼포먼스를 비디오에 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비디오라는 매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가 됨.

유형

- 1) 퍼포먼스의 기록(비디오 카메라를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 초기 비디오 아트 작가들 대부분
- 2) 새로운 이야기 구조나 방식(선형/비선형) 창조: 80, 90년대 비디오 아트 작가들
- 3)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 90, 2000년대 비디오 아트 작가들